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소 영

2023년 8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소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김소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봉 (서명) 

위 원 박정환 (서명) 

위 원 최보영 (서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 소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특성으로 특징되는 완벽주의에 대한 재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행동에 긍정적 효과성 구축을 위한 근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43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기준 총 패널 16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2022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측정도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한기연(1993)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Hewitt 과 Flett(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여 타당화하고 이명숙(2003)이 2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해 기술통계, 신뢰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Process Macro 4.0v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통계를 실시한 후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에서도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중요 변인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준비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3. 연구모형	7
4.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1
1. 다차원적 완벽주의	11
2. 학업적 자기효능감	14
3. 진로준비행동	16
4. 각 변인간의 관계	18
가.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18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20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및 절차	22
2. 측정도구	23
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23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24
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25
3. 자료처리 및 분석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7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28
3.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29

4.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30
가. 대학생의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30
나. 대학생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31
다.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32
V. 논의 및 제언	36
1. 논의	36
2. 결론 및 제언	39
VI. 참고문헌	41
Abstract	50
부록	53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Ⅲ-2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3
표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4
표Ⅲ-4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5
표Ⅳ-1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	27
표Ⅳ-2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28
표Ⅳ-3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9
표Ⅳ-4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31
표Ⅳ-5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32
표Ⅳ-6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33
표Ⅳ-7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조건부 간접효과 ..	34

그림 목 차

그림 I -1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모형	8
그림 IV-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발달과업이 주어진다. 각 시기마다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다. 대학생 시기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잠시 유예받고 그동안 쌓인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김중학, 최보영, 2015) 실제적이고 현실적 진로관련 행동을 준비해야하는 발달과업을 갖는 시기이다. 특히, 자신의 가치와 능력, 사회적 변화 및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여 직업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소연희, 2011).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 진로 탐색이나 자신에 대한 정체감 확립이 구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다(이억범, 2007; 이현주, 2009). 학교 서열 및 합격 가능성 여부에 따른 대학과 학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적성과 흥미, 장래희망을 고려한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선중, 2006). 자신의 관심 영역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 탐색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학을 하다 보니, ‘진로목표의 부재’, ‘전공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음’, ‘취업에 대한 걱정’ 등의 다양한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있다(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이행으로의 어려움이 된다.

아울러 최근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체제와 사회구조 변화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이에 현시대는 다양한 직업, 직종이 생겨나고,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지만 장기 경기침체는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층 취업난을 가중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김지은, 2022). 이런 급변하는 진로환경에서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취업과 분리시킬 수 없는 만큼 적절하면서 꾸준한 진로준비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김봉환(1997)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 인지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 차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을 구체적인 행위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즉, 자신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로 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장비, 교재 등을 구입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수란, 정미경, 2014; 김지은, 2022; 김혜민, 라영안, 2020; 박재은 외, 2011; 백사인, 김경미, 2011)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적응 및 적응행동 등 개인내적 변인과 적응관련 변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서 학업과 진로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문승태, 박미하, 2013; 이경희, 김지연, 2016). 대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장래 취업에 대한 희망을 낮추거나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강영배, 김기현, 2004;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조성연, 이선순, 2006). 다수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경필, 심미영, 2014; 구본용, 유제민, 2010; 이주연, 이기학, 2014; 조성연, 이선순, 2006).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승태, 박미하, 2013; 이경희, 김지연, 2016).

대학생의 적절한 진로준비행동 수행에는 성공적인 학업수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대한 예측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지도나 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염시창, 박현주, 2004). 이 때문에 학습자의 학업적 수행과 관련된 맥락·특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직접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말한다(Bandura, 1997;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수준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하위요인이 포함된다(김아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도전적 과제 선택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고, 자기조절적 기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효능감이 높으며,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진로를 유예할 수 없는 막바지 시기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처럼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더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바 있다(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완벽주의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비판적 평가와 함께 수행에 대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성격특성이다(Hewitt & Flett, 1991).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출판사 시공사가 남녀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2%가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응답했다(뉴스와이어 보도자료, 2014). 특히 고학력 시대에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취업난의 심각화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은 학업성취나 취업을 통한 자기 평가로 인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가수정, 2015).

초기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부정적 성격 특징으로 연구되었다. Hamachek(1978)이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다원화하는 접근을 시도하면서, 단일차원의 특성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최영옥 2011). 완벽주의자들의 특성 중 하나로 높은 기준으로 인해 어떤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인데, 최근 연구들은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고 있다. Hewitt &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행동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각 차원에 따라 완벽주의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영향과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현희, 김창대, 2011: 박혜선, 김봉환, 2013: 주희진, 조규관, 2017: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Flett, Besser,

Sherry, & Mcgee, 2003). 완벽주의의 적응적, 부적응적 기능은 완벽함에 있어 그 기준의 부과가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게 향하거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부과되는 데에 따라 달라진다(이미화, 류진혜, 2002).

허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며 삶의 만족은 감소시킨다고 확인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구들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긍정적 정서 및 삶의 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김지윤, 이동귀, 2013; 김현정, 손정락, 2006; 이미화, 2001; 전명임, 2009; 허현정, 2004). 김혜진, 김광웅(2005), 성주희(2011), 이기쁨(2018)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혜선, 김봉환(2017), 장연정(2013)의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지은(2022), 조혜진, 김미선, 김정음,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정서, 불안, 우울, 강박 등의 증상(Hewitt, Flett, 2004)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부정적 차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긍정적인 속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적 동기를 부여하여 긍정적인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Parker & Mills, 1996), 타인에 의한 적절한 기대감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성취동기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승희, 1999). 이로 인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 접근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작용기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와 관련하여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특성적인 진로관련 변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박혜선, 김봉환, 2013). 진로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흥미와 가치를 탐색하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과정과 함께 진로준비를 위

해 필요한 행동을 촉진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의식이 성숙되어 있을지라고 그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은 발달해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이 부진한 학생들이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나 인지적, 심리적 측면으로 인해 부진한 것인지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연구 실적이 부족한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변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진로상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하는가?

가설 1-1.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조절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방향과 크기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고길곤, 201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서영석, 2010). Baron & Kenny(1986)는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으로 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났거나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 도출 시에는 조절효과를 검증한다(Baron & Kenny, 1986; 서영석, 2010).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세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수의 연구들 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반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완벽주의 전체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영향을 보이는 연구(이연실, 김한이, 2019; 장연정, 2013)가 있고,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박윤아, 2010), 부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김미란, 2007)등으로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김아영, 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의 수행 및 성취수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인으로,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해서 시험불안, 학업소진,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김현진, 2013; 손윤실, 김정섭, 2016; 조수용, 임영진, 2018).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써 작용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조절변인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이론적 토대,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의

선정과 적절한 표본 크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론적 토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의 선정을 만족시키고자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74 ~ .93으로 신뢰도 검증을 마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적절한 표본 크기 확보에 대한 충족을 위해 430명의 표본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I-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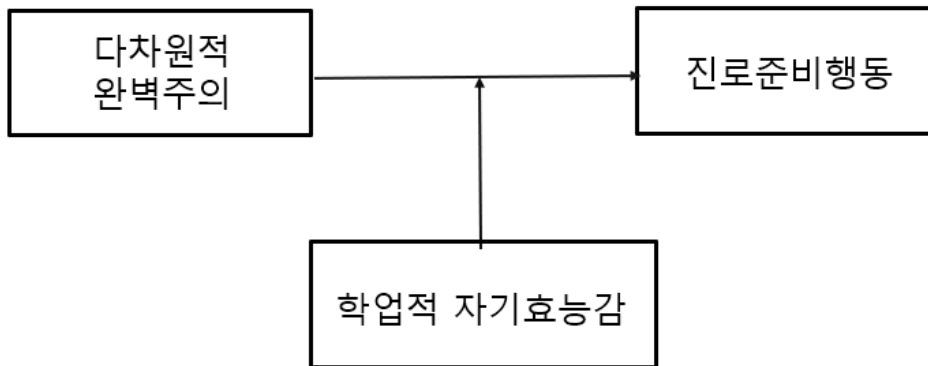


그림 I-1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다차원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결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로 인간의 중요 특성 중 하나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완벽주의에 대해 역기능적 속성의 단일 차원에 집중하기보다 순기능의 특성도 조망하게 되면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고, 각각을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또는 타인에 의해 높은 행동 기준의 목표를 가지고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신념을 바탕으로 엄격한 잣대로 행동을 평가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변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정의한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것으로, 학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과제 수행여부와 수준을 예측하는 인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특수한 개념이다(김아영, 2007; Eden & Zuk, 1995).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학업과 과제를 요구되는 수준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박인영(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인지 또는 심리적인 면보다 행동

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아닌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조성연과 이선순(2006)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정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를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또한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3)이 2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적 완벽주의

완벽주의의 정의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Flett & Hewitt, 2002). 학자에 따라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Burns(1980)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 하도록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취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Frost 등(1990)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완벽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이론적, 학습이론적 접근 등을 시도하였다(Hewitt & Flett, 1991). 학습이론적 접근에서는 완벽주의를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운 학습된 행동으로 보았다(Burns, 1980; Pacht, 1984). 인지이론적 접근에서는 실패, 좌절, 스트레스 상황은 완벽주의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활성화시키고, 비판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Hewitt & Flett, 1991b; Ingram & Kendall, 1987; Pennebaker, 1989).

초기 완벽주의 연구는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분류해 설명하였고(Hamacheck, 1978), 역기능적 인지유형이나 부정적인 성격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Burns, 1980; Hamacheck, 1978; Pacht, 1984).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구분해 보면 사고적 특징은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특징은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행동적 특징은 지연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주희진, 조규판, 2017).

그러나 1990년대부터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 성격 특징에 국한하지 않고, 다차원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a). 완벽주의는 Stoop(2006)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응답했을 만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Adler(1964)는 완벽주의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고, 높은 기준 설정은 삶에 대한 적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하정희, 조한익, 2006). 완벽주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만큼 작은 일에도 철저함을 보여 신뢰감을 높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함 때문에 존경을 받기도 한다(Hollender, 1978).

Frost 등(1990)은 개인적 특성 차원에서, Hewitt과 Flett(1991)은 행동이 향하는 방향성의 측면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구분하였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도구의 개발은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의 경험적 연구를 촉발시켰고, 적응적인 완벽주의의 존재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a). 이후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해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Adkins & Parker, 1996; Frost, Heimberg, Holt, Martia, & Neubauer 1993; Hewitt & Flett, 1991a).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자의 특징을 6가지 차원으로 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6가지 차원은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이다.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은 부적응적 측면으로, 개인적 기준, 조직화는 적응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 의심 차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집단의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 의심은 정신병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Juster, Heimberg, Frost, Holt, Martia, & Faccenda, 1996; Ant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Frost & Steketee, 1997; Frost et al., 1990).

Hewitt과 Flett(1991a)는 완벽주의 행동이 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3개의 차원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다. 3개의 차원은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Hewitt & Flett, 1991a). 단순히 실패하지 않으려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의 반영으로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타인에 대한 비난, 적대감, 신뢰 부족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에서의 좌절, 부부나 가족문제와 관련된다(남궁혜정, 이영호, 2005).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 부과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Hewitt과 Flett(1993)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성취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김현정, 손정락(2006)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김지은(2022)의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두 변인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장연정(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 김지은의 연구와는 일부 상반된 결과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 보고가 있고, 다차원적 접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으로 기능하는 양방향성을 가진 성격 경향으로 밝혀지고 있다(박혜선, 김봉환, 2013).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낮고, 더 높은 자기효능감, 긍정적 정서와 관련성이 있었다. 완벽주의의 결과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적응적 측면은 진로준비행동에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적응적 측면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완벽주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쳐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고 부적응적 측면은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적응적 측면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의 연구는 부정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학업소진, 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측면의 특성이라 하더라도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염두에 두어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다 (Bong & Skaalvik, 2003). 즉, 개인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가 사회인지이론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며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행동의 실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Bandura,1986).

김아영, 박인영(2001)은 Bandura(198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을 토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했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과 인내, 도전 수준이 달라진다(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맥락-특수적 자기효능감 영역에 해당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인지적 측면의 특수한 개념이다(김아영, 2007; 전선미, 20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상황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신중호, 신태섭(2006)은 학업 수준에 대한 자기 지각의 척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김아영, 박인영(2001)은 고등학생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여 표준화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과제수준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과제수준 선호는 수행상황에서 임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버거울수 있는 과제수준도 도전을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숙, 2022).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상황에 맞게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다(Bandura, 1986). 김아영, 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이 자기관찰, 자기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자기반응처럼 동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규정하였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Sherer et al., 1982).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다른 두 하위요인은 인지적, 동기적 측면을 설명했다면, 자신감은 정서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으로 성립되고, 정서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1993).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 집중도를 높이고, 과제에 근접하려는 의지가 강해 목표를 잘 성취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학습전략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더 잘 세우고, 학업적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Kurtz & Borkowski, 1984; Schunk, 199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학생들은 무기력을 느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nk, 1990).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가 있고, 결과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김은숙, 2022; 문승태, 박미하, 2013; 성지아, 2018).

선행 연구들(신중호, 신태섭, 2006; 염시창, 박현주, 2005; 전선미, 2014)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관련 변인들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학업 지연행동, 시험불안, 학업성취 변인들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아영, 박인영(2003)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를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김아영(2007)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학업성취도를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일관된 보고를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심리나 인지적인 면보다 행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김봉환(1997)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조성연과 이선순(2006)은 개인이 수립한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에는 심리검사와 같은 자기 발견 행동과 정보 수집을 통한 진로 방향 탐색행동이 있으며, 취업과 직결된 시험과목 준비나 취업 절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력서 등을 준비하는 행동이 있다(김계현, 1997). 스펙을 쌓는다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펙의 예로는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토익 점수 취득, 해외어학연수 등이 있다. 스펙을 쌓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취업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김명옥, 2012).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미비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개념을 국내에 도입했다. 김봉환은(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 세 가지로 설명했고, 김계현(2002)은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자기 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과 직접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 두 가지로 설명했다. 인지나 정서적 차원이 아닌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함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행위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로성숙 개념과는 차별점을 가진다(김봉환, 2010;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제작에 있어,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들 중 진로준비행동과 깊이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 II(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의 도구들을 분석하였다. 처음 20문항을 선정한 후에 자문과정을 거쳐 16문항을 확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수집 활동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

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자신에 관한 정보에는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이 해당되고,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에는 현황, 전망, 취업방법, 요건, 승진, 작업환경 등이 해당된다. 둘째, 도구구비 활동은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장비, 교재, 기자재 구입이나 진로에 따른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 획득을 포함한다. 고명숙(2014)은 정보수집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활동을 포함하다고 규정했다. 셋째, 목표달성 활동은 도구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다. 도구와 자료를 구비해 놓은 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야 진로준비라고 할 수 있다(김은숙, 2022). 실제 면접에 대비한 모의면접이나 자신의 관심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행동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김종상, 2018).

김봉환(1997)이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여 제시하기 이전까지는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지적능력, 흥미, 적성 등 개인의 인지, 신념, 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진로발달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행동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김동원, 2015; 김지선, 2012, 배정수, 2014; 이현진, 2008). 그러나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진로발달 연구에서 행동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냈다(김봉환, 1997; 장기명, 1998; 최동선, 2003).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으나(손은령, 손진희, 2005; 이재창 외, 2007), 단순히 학년이 높아지는 것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김현순, 2017). 송한나(2013)는 대학의 진로교육이나 상담에서 행동차원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진로교과목 수업으로 지도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었고, 1년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윤영란, 2008).

김현순(2019)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인 변인의 설명력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진로탄력성을 제안했다. 이는 박유리 외(2017)의 메타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고려하여 진로 결정을 더 잘하게 된다는 손

은령, 이순희(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 변인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을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진로자체를 바꾸거나 수준을 낮추는 결정을 하게 된다. 여러 연구들(고경필, 심미영, 2014; 구본용, 유제민, 2010; 조성연, 이성순, 2006)에서 대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불안 및 진로장벽과 부적의 상관성이 있지만(김경태, 2003; 김선중, 2005; 유미정, 2008). 진로정체감, 진로효능감, 진로성숙도, 성취동기와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김선중, 2005; 박완성, 2002; 양진희, 김봉환, 2008; 유미정, 2008; 진현정, 20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성취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장벽, 불안 등 여러 심리적 변인과 진로준비행동은 밀접한 연관성이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진로 교과목, 진로 교육, 상담과 같은 진로지도도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변인간의 관계

가.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들은 완벽성이 심리적 고통, 부적응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김윤희, 서수균, 2008; 이지연, 장형심, 2013)), 지연행동, 시험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었다(김현정, 손정락, 2006; 이수민, 양난미, 2011; 허현정, 한종철, 2004). 완벽주의자들을 완벽주의라 칭하는 이유로 최고의 완벽을 수행해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일 수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수행 계획과 성공 아니면 실패 뿐이라는 사고적 특성으로 인해 수행 수

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Burka & Yuen, 2008; 이수민, 양난미, 2011, 재 인용).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좌절과, 자기비하에 빠지게 하거나(김윤희, 서수균, 2008),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되고(염시창, 박현주, 2012; 전명임, 이희경, 2011), 수행해야 할 활동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행동의 경향성을 보인다(정상목, 이동귀, 2013; 정승진, 1999). 즉,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반된 행동 결과를 보여 개인에게 꽤 높은 수준의 불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수민, 양난미, 2011). 부적응적 측면에 집중 경향을 보였던 연구들은 근래에 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학습, 대인관계, 성취 등 주요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적응적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이지연, 장형심, 2013). Hollender(1965)는 완벽주의자들은 매사에 철저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며,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조직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박혜선(2013)은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성취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기준이나 조직화와 같은 완벽주의 하위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적 기준, 조직화, 수행에 대한 의심이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김미란(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완벽성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게 되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박혜선, 2013).

장연정(2013)의 연구에서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완벽주의 전체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박윤아(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장연정(2013)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도 있었다. 이연실, 김한이(201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완벽주의 전체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주희진과 조규판(2017)의 연구에서 강조한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진

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적응적 측면에 해당하는 완벽주의는 진로준비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완벽주의 전체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고,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부적응적 측면에 해당하는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과 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지은(2022), 이기쁨(2018), 조혜진, 김미선, 김정음,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측면으로 해석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 김지은(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공통되게 정적으로 유의하고,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 또는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완벽주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고, 완벽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보상을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바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Blatt, 1995; Flett & Hewitt, 2002). 부적응적 측면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행동을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진로 분야에 긍정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상담지도 병행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Lent 등(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설정하면, 성취에 다다르기 위한 목표 달성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특정 영역에 대한 향상된 흥미와 자기효능감은 해당 영역의 참여 의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의 내용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선택하게 한다(김봉환 외, 2010). 대학생들은 전공선택과 더불어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지, 전공을 바꿀지, 대학 졸업 후에 진학할지, 취업할지 등의 다양한 고민 과정을 거쳐 진로 목표를 세

우게 된다(임은미, 2011). 여기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토대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현한 외(2018)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내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김지연, 2016; 문승태, 박미하, 2013). 문승태, 박미하(2013)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낙관성의 부분매개를 검증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화, 서지영(2021)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한 박현희, 김순이(2016)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김혜민, 라영안(2020)은 전공계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이공계열, 비이공계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박현우, 김희림(2020)은 체육 전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영향을 검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는 목표달성활동에만 영향을 미쳤고, 자신감은 도구구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체육 전공계열 학생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과제선호요인과 자신감 요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4월 기준 총 패널 16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1위 리서치 업체인 M사에 의뢰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패널을 모집하는데 신규가입 회원검증을 위한 해피콜 시스템 도입, 휴대폰 실명 인증 등의 철저한 과정을 거쳐 패널을 관리하고 있다. 160만명 중 20-29세 분포도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전 질문에서 설문조사에 동의여부를 묻고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설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진행했으며, 성실하게 응답에 참여한 표본 430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3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10	48.8
	여	220	51.2
학년	1학년	104	24.2
	2학년	110	25.6
	3학년	108	25.1
	4학년	108	25.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61	37.4
	자연공학계열	187	43.5
	사범계열	20	4.7
	예체능계열	28	6.5
	기타	34	7.9

2. 측정도구

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완벽주의 성향의 측정을 위해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것을 한기연(1993)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각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까지 평정하게 되며, 자가지향 완벽주의 4개, 타인지향 완벽주의 9개, 사회부과 완벽주의 5개가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전체와 3가지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는 3가지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82, .86,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2, .646, .788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77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구성 및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Ⅲ-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Ⅲ-2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3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가지향 완벽주의	1, 6, 8*, 12*, 14, 15, 17, 20, 23, 28, 32, 34*, 36*, 40, 42	15	.892
타인지향 완벽주의	2*, 3*, 4*, 7, 10*, 16, 19*, 22, 24*, 26, 27, 29, 38, 43*, 45*	15	.646
사회부과 완벽주의	5, 9*, 11, 13, 18, 21*, 25, 30*, 31, 33, 35, 37*, 39, 41, 44*	15	.788
완벽주의 전체		45	.877

*역채점문항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되어있다. 3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으로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이 있다. 과제난이도선호는 자신의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자기조절적 기제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를 측정한다. 자신감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가지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학업적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전체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김아영, 박인영(2001)이 타당화한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는 과제난이도선호 .84, 자자기조절효능감 .76, 자신감 .74 이었고,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72이었고, 하위요인들은 과제난이도선호 .867, 자기조절효능감 .847, 자신감 .848로, 표Ⅲ-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3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과제난이도 선호	1, 4*, 7*, 10, 13, 16*, 19*, 22, 25, 27	10	.867
자기조절 효능감	2, 5, 8, 11, 14, 17, 20, 23, 26,28	10	.847
자신감	3*, 6*, 9*, 12*, 15*, 18*, 21*, 24*	8	.848
전체		28	.872

*역채점문항

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본 연구의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3)이 2문항(8번, 12번)을 추가해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2문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널리 보급된 인터넷 정보 사이트와 대학교에서 활성화된 학생생활연구소, 진로상담센터, 취업센터 등 현실여건 반영을 위해 추가된 것이다. 반응양식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 정보수집활동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전체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0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Ⅲ-4과 같이 나타났다.

표Ⅲ-4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30)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준비 행동	1~18	18	.920
전체		18	.920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를 사용하였고, 조절효과의 기울기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

여 아래와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왕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역할 여부 검증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으로, 각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결과는 표IV-1에 제시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7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척도, 진로준비행동은 4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IV-1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 (N=430)

변수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차원적 완벽주의	자가지향	4.53	.85	-.15	.64
	타인지향	3.61	.54	-.65	2.28
	사회부과	3.88	.65	-.48	1.4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3.56	.54	.16	1.24
진로준비 행동	전체	2.53	.58	-.28	.23

완벽주의 하위요인은 자가지향 완벽주의(M=4.53, SD=.85), 타인지향 완벽주의(M=3.61, SD=.54), 사회부과 완벽주의(M=3.88, SD=.65)로 나타났다. 4점이 ‘보통이다’로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5점인 ‘그렇다’ 와의 사이에 해당한다. 타인지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3점인 ‘그렇지 않다’와 4점인 ‘보통이다’ 사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가지향 완벽주의 수준은 중간점수인 4점보다 높고, 타인지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간점수 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나

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6점 만점에 3.56(SD=.54),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53(SD=.58)로 나타났다. 왜도는 $-.82 \sim .16$, 첨도는 $.23 \sim 3.78$ 로 나타나 완벽주의 전체, 완벽주의 하위요인들,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자가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N=430)

	1-1	1-2	1-3	2	3
1-1. 자가지향 완벽주의	1				
1-2. 타인지향 완벽주의	.388**	1			
1-3. 사회부과 완벽주의	.373**	.347**	1		
2. 학업적 자기효능감	.360**	.210**	-.227**	1	
3. 진로준비행동	.272**	.181**	.265**	.210**	1

** $p < .01$

상관분석 결과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구체적 내용은,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72$, $r = .181$, $r = .265$, $p < .01$). 이는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360$, $r=.210$, $p<.0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r=-.227$, $p<.01$)을 보였다. 이는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가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3 제시에서 자가지향 완벽주의의 수준($\beta=.272$, $p<.001$),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수준($\beta=.181$,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beta=.265$, $p<.001$)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스스로 설정한 높은 행동 수준에 도달하고자 지각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높은 행동 수준의 도달을 기대함을 지각하거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준으로 완벽해지고자 압력을 가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모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경향성을 보였다. Durbin-Watson의 결과(DW=2.095, 2.086, 2.091)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

표IV-3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430)

독립변수	진로준비행동						
	B	Std Err	β	t	R ²	DW	F
자가지향 완벽주의	.186	.032	.272	5.847***	.074	2.095	34.182***
타인지향 완벽주의	.198	.052	.181	3.815***	.033	2.086	14.554***
사회부과 완벽주의	.240	.042	.265	5.689***	.070	2.091	32.361***

*** $p<.001$

4.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명확한 결과 해석을 위해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와 조절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각각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추가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분석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가. 대학생의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4에 따르면 공차한계 값 .858 ~ .983, 분산팽창지수(VIF) 값 1.017 ~ 1.16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1단계에는 7.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F=34.182$, $p<.001$),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2단계는 8.8%의 설명력을 나타내어($F=20.679$, $p<.001$) 1.4% 증가하였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 설명력은 8.8%를 나타내었다($F=13.759$, $p<.001$).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3단계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은 0.6%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3, p>.05$). 이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표IV-4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N=430)

단계	모형	진로준비행동						
		R ² (ΔR^2)	F	B	SE	β	t	VIF
1	자기지향	.074 (.072)	34.182***	.186	.032	.272	5.847***	1.000
	자기지향			.155	.034	.226	4.557***	1.149
2	학업적 자기효능감	.088 (.084)	20.679***	.139	.054	.128	2.592*	1.149
	자기지향(A)			.155	.034	.226	4.552***	1.149
3	학업적 자기효능감(B)	.088 (.082)	13.759***	.138	.054	.128	2.556*	1.165
	상호작용항(A*B)			.006	.045	.006	.123	1.017

* $p<.05$, ** $p<.01$, *** $p<.001$

나. 대학생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5에 따르면 공차한계 값 .941 ~ .981, 분산팽창지수(VIF) 값 1.019 ~ 1.06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는 3.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F=14.554, p<.001$),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2단계와 3단계는

6.4%의 설명력을 나타내어($F=14.518, 9.761, p<.001$) 3.1% 증가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3단계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2.6%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542, p>.05$). 이에 따라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IV-5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N=430)

단계	모형	진로준비행동						
		R ² (ΔR^2)	F	B	SE	β	t	VIF
1	타인지향	.033 (.031)	14.554***	.198	.052	.181	3.815***	1.000
	타인지향			.156	.052	.144	2.998**	1.046
2	학업적 자기효능감	.064 (.059)	14.518***	.194	.052	.179	3.747**	1.046
	타인지향(A)			.153	.053	.140	2.905**	1.063
3	학업적 자기효능감(B)	.064 (.058)	9.761***	.197	.052	.182	3.776***	1.054
	상호작용항(A*B)			.042	.078	.026	.542	1.019

* $p<.05$, ** $p<.01$, *** $p<.001$

다.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 값 .943 ~ .992, 분산팽창지수(VIF) 값 1.008 ~ 1.060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나타났

다. 결과는 표IV-6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1단계에는 7.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F=32.361$,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2단계는 14.7%의 설명력을 나타내어($F=36.831$, $p<.001$) 7.7% 증가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 설명력은 16.3%를 나타내었다($F=27.596$, $p<.001$).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25$, $t=2.816$, $p<.01$). 이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표IV-6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430)

단계	모형	진로준비행동						
		R ² (ΔR^2)	F	B	SE	β	t	VIF
1	사회부과	.070 (.068)	32.361***	.240	.042	.265	5.689***	1.000
	사회부과			.299	.042	.330		
2	학업적 자기효능감	.147 (.143)	36.831***	.308	.050	.285	6.202***	1.054
	사회부과(A)			.290	.041	.321		
3	학업적 자기효능감(B)	.163 (.157)	27.596***	.313	.049	.289	6.341***	1.056
	상호작용항(A*B)			.155	.055	.125		

* $p<.05$, ** $p<.01$, *** $p<.001$

조절효과 유의성에 따른 간접효과의 조건 성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여 평균 값의 ± 1 표준편차(SD)의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표본을 5000번 추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 기울기는 유의하였다. 그 결과값은 표IV-7에 제시했다.

표IV-7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조건부 간접효과 (N=430)

학업적자기효능감	coeff	s.e.	t	LLCI	ULCI
-1SD	.207	.053	3.927***	.103	.310
+1SD	.374	.049	7.610***	.277	.47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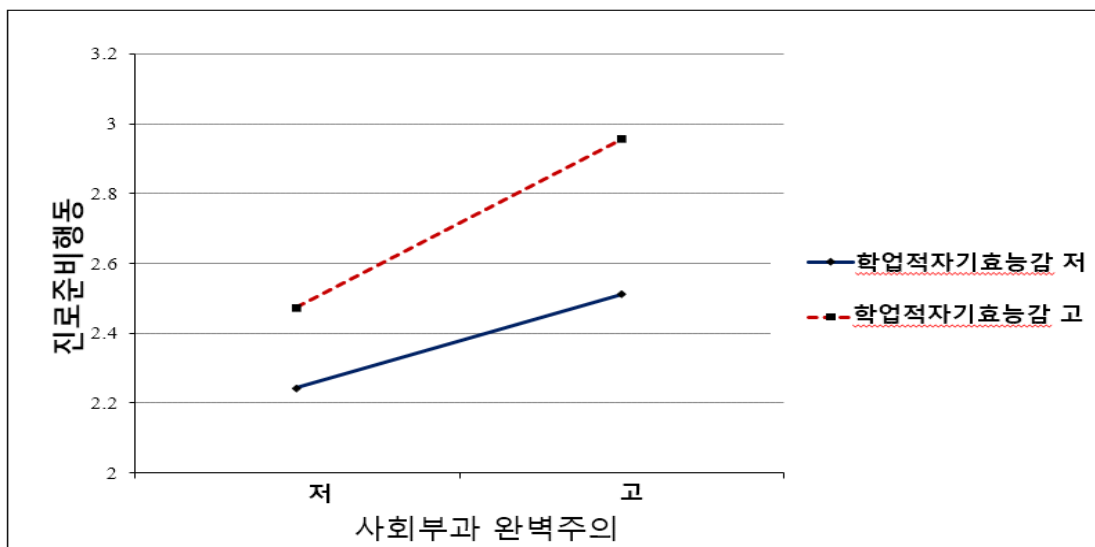


그림 IV-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IV-1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향을 나타낸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하고,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완벽주의 전체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장연정(2013)의 연구, 완벽주의 전체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이연실, 김한이(2019)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나 박윤아(2010)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높을 수 있음을 보고한 김지은(2022), 이기쁨(201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 결과는 정적 상관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문승태, 박미하(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지아(2018)의 연구에서는 학년, 입학 시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변수들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순위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개인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결과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은(2022), 조혜진, 김미선, 김정음, 김영석(2022)의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고,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별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주희진, 조규판(2017)의 연구와는 일부 일치하였다. 박혜선(2013)은 완벽성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의미있는 타인의 적절한 기대감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보람, 양난미, 2012; 추상엽, 임성문, 2009). 그러나 이것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수준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강박, 우울, 섭식문제 등과 관련이 되므로 오히려 학업지연행동을 높일 수 있다(APA, 2013; Flett & Hewitt, 2013). 이처럼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심리와 관련이 있기도 하나(곽유미, 2010), 오히려 현대 사회는 이상적 상태이자 성공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전명임, 이희경, 2011). 완벽주의 성향은 적절한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과제수행이나 목표행동을 유발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하위요인별로 달랐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정적관계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조직적, 체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특징되는 특성상 진로준비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상호작용 효과보다 직접효과나 간접효과가 더욱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이기쁨(2018)의 연구, 지방대학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이연실, 김한이 (2019)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단순기울기 검증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기대에 따른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하고 학업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전선미((2014)의 연구결과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벽주의와 특정 행동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부과된 기대에 따라 높은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각하면서 학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능력, 흥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은 적응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분되고 있는 만큼 특성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따라 높은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평가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포부, 시험불안, 취업스트레스 등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 또는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면적인 요인으로 몇몇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에게 향한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성향은 과제수행이나 목표행동을 이어나가는데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중요한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은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받는 기준이라고 인지하면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에 도달하려 노력하고, 스스로 학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신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완벽주의의 변화를 위한 개입을 연구한 경우도 있으나 완벽주의는 변화가 쉽지 않은 개인적 특성인 만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거나 자신이 도달 가능한 적정 수준의 목표 설정 후 성공 경험을 갖는 것, 부정적 자기진술을 줄이고 긍정적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에 표집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을 겸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비교할 경우 일반화하는데 적절할 수 있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은 인지, 정서, 감정의 차원으로 각각 측정하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자신감 차원의 요인부하량이 낮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다른 두 하위요인과는 동일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이수민, 양난미, 2011; 임승현, 박성연, 2010; 추상엽, 임성문, 2008). 이에 하위요인별 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 현장에서 좀 더 명확한 방향의 접근을 가능케 하여 상담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1997년에 김봉환에 의해 개발되어 2003년 이명숙이 2문항을 추가한 척도지를 사용했다. 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척도지로 현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변화된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개발된 진로준비행동 검사지를 사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VI. 참고문헌

- 강영배, 김기현(2004). 왜 잘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 고등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교육사회학**, 14(3), 1-20.
- 고경필, 심미영(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구본용, 유제민(2010). 진로상담 :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경령, 서은희(2017).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4), 65-89.
-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2012). 독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계현, 황매향, 선혜연(2012). **상담과 심리검사**. 학지사.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2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화, 서지영(2021).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수강한 졸업학년 간 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77-86.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외(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학지사.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 연구**, 39(1), 95-123.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은숙(2022).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2016). **2016년 다보스 포럼 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서울: 매경출판.
- 김중상(2018). **여행사 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 분석: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학, 최보영(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7(4), 143-169.
- 김지윤, 이동귀(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김지은(2022).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박기환(2010). 완벽주의의 기능성: 완벽주의와 적응지표들의 관계.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15(4), 765-780.
- 김현환, 정선경, 정해인, 이은성(2018). 전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연구**, 23(1), 15-28.
- 김현순(2019).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32(3), 25-41.
- 김현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김현진(2013). 사이버 대학생의 환경적 학업방해 요소 및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555-573.
- 김현희, 김창대(2011). 완벽주의자 하위유형 분류 연구-평가염려, 개인기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김혜민, 라영안(2020).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73-193.
- 김혜진, 김광웅(2005). 여자대학생의 가족환경과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2(2), 75-91.
- 김희주(2014).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혜정, 이영호(2005).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449-468.
- 두경희(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351-372.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민솔비, 김준(2018). 체육계열 대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125-138.
- 박보람, 양난미(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

- 리학회지, 31(2), 541-561.
- 박완성(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3(4), 57-73.
- 박윤아(2010).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우, 김희림(2020). 체육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2), 63-77.
- 박혜선, 김봉환(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 백사인, 김경미(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 91-109.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희정, 윤명희(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39-157.
-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2012). 진로 미결정 대학생의 진로 고민 내용 및 원인과의 결과: 함의적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 성주희(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지아(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연구학회지**, 2(4), 25-35.
- 소연희(2011). 사범대학생의 자기결정욕구,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17-134.
- 손윤실, 김정섭(2016). 고등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30(4), 671-690.
- 송한나(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민, 박명숙, 함경애(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아동의 발표불안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3-43.
- 신중호, 신태섭(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양태연, 한기순, 박인호(2018). 과학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무기력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7(3), 5-28.
- 염시창, 박현주(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5.
- 오민경, 이서정, 박상표, 문인수, 하창순(2017). 대학생 완벽주의, 취업불안,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학연구**, 2(2).
- 윤영란(2008).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김지연(201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8.
- 이기쁨(2018).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수민, 양난미(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연실, 김한이(2019). 지방대학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151-166.
- 이주연, 이기학(2014).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 매개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65-81.
- 이현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섭, 박세영(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학업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9(2).
- 장연정(2013).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임, 이희경(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2(1), 67-83.
- 전선미(201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가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06). 초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효능감이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이선순(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조수용, 임영진(2018).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25(8), 159-179.
- 조혜진, 김미선, 김정음, 김영석(2022).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것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9(2), 25-42.
- 주희진, 조규관(2017).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491-508.
- 천경희, 송영명(2012). 의과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4), 107-132.
- 최영옥(2011). **교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윤경, 김성희(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 13(5), 2085-2097.
- 추상엽, 임성문(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와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 하정희, 조한익(2006).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73-896.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8(4). 277-299.
- Adkins, K. K., & Parker, W. D.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 529-54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tony, M. M., Purdon, C. L., Huta, N.,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ng, M., & Skaalvik, E.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1), 1-40.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 34-57.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den, D., & Zuk, Y. (1995). Seasickness as a self-fulfilling Prophecy: raising self-efficacy to boost performance at sea.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5)*, 628-635.
- Flett, G. L., & Hewitt, P. L., Blankstein, K,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lett, G. L., & Hewitt, P. L., (2013). **완벽주의 이론, 연구 및 치료**. (박현주, 이동귀, 신지은, 차영은, 서해나 공역). 서울: 학지사. (2002년 원저 발간).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rtia, J. L.,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Setedetee, C., (1997). Perfectionism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291-296.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92-200.
- Ham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1)*,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2004). Perfectionism, Cognition, and Affect in

- Response to Performance Failure vs Succ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ur Therapy*, 22, 297-324.
- Hewitt, P. L.,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 McGee, B. (2003). Perfectionism Is Multidimensional: a reply to shafran, Cooper and Fairburn (2002).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0), 1221-1236.
-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Je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rtia, J. L.,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03-410.
- Kurtz, B. F., & Borokwski, J. G. (1984). Children's metacognition: Exploring relations among knowledge, process and motivational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7, 335-354.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f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arker, W. D., & Mills, C. J. (1996). The incidence of perfectionism in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0, 194-199.
- Pennebaker, J. W. (1989). Streams of consciousness and stress: Levels of thinking. In J. S. Ulenan & J. Barhg(Eds), *Unintended thought*(pp. 327-350). New York: Guilford Press.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71-86.

<Abstract>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Kim So-yo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reconsideration of perfectionism,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building positive effectiveness in behavior through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randomly sampled from 430 college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a 4-year universit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and collecting online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2, 2022 to December 6, 2022 through an online research company that has a total of 1.6 million panels as of April 2023.

The measurement tool us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an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items.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Hewitt and Flett's (1991) scale adapted and standardized by Han Ki-yeon (1993) was used. Academic self-efficacy was measured using a scale developed by Kim A-young and Park In-young (2001). The measuremen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developed and validated by Kim Bong-hwan (1997), and used as a scale used by Lee Myeong-suk (2003) with two additional item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SPSS 18.0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4.0v. The summary of the results after conducting the statistics is as follows.

First,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hich are sub-factor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al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sub-fact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l of them showed results that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perfectionism.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was not significant in the effects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effect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In summary,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increas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t was confirm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increas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Key word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검사 문항과 통계자료 분석에 필요한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른 정답이 없고, 자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애써 답해주신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빠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에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김소영

지도교수 : 최보영

E-mail : sodaasu@hanmail.net

▣ 아래의 사항에 응답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사범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기타_____

▣ 다음 문항들을 주의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표시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단 일을 시작하면 다 끝마칠 때까지는 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친구가 최선이 아닌(차선책) 선택을 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일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주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봐도 나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내가 일을 잘하면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할 것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내게 중요한 사람(가족, 친구)에게 큰 기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주위 사람들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내가 모든 일에서 탁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매우 속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한 경우 그 일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의 친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내게 중요한 사람은 결코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내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비록 나타 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일 필요는 없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기를 기대하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나는 평범한 사람을 존경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사람들은 내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친한 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의 각 문항은 개인의 태도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는 기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R)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R)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R)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수업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또는 질문 하실까봐) 불안하다.(R)	①	②	③	④	⑤	⑥
10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실수할 것 같아 불안하다.(R)	①	②	③	④	⑤	⑥
1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R)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R)	①	②	③	④	⑤	⑥
19	학교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R)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R)	①	②	③	④	⑤	⑥
22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R)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 문항들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탐색하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당하기 위하여 진로지 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